

문제1. <3자비교>

1. 일단 첫문장이 한 문장으로 한 문단을 구성하셨는데,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음 문단하고 이어서 쓰셔도 되요.
2. 제시문 (가)와 (나)(다)는 잘 비교하신 것 같습니다. (가) - 연관성이 없다. (나)(다) -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2문단에서 나타난 제시문 (가)의 근거서술로써 제시문 (가)가 왜 연관성이 없는지도 잘 서술해 주셨구요. 3문단에 (나)와) 비교해준 것도 좋은 포인트로 보입니다.
3. 하지만 문제는 여긴데요. 제시문 (나)(다)가 연관성이 서로 있고, 또 구분되는 포인트를 과정으로 잡았거든요. 그럼 근거 또한 주장에 맞는 근거가 서술되어야 해요. 하지만 제시문 (나)가 어떻게 (다)랑 구분되는지 서술 되었지 않으며, 마지막에 (다)는 불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제시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틀린 내용입니다. 제시문 (다)는 오히려 불행이 있으면 전체적인 합의 감소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 제시문과 반대 되는 내용을 근거로써 가져옴으로 제시문 (나) (다)를 비교하는데 잘못된 근거 서술을 하였고, 다시 말하면 제시문 (나)가 왜 (다)랑 구분되는지도 명확한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비교에서 중요한건 비교 기준 뿐만 아니라, 왜 비교 기준을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서술입니다. 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비교가 아닌 제시문들을 단순 나열한 글이 되어버린 듯한 글입니다.

문제2. <표 대응>

1. 표 대응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시문 (나)의 논지와 제시문 (다)의 논지를 잘 짚어 내셨고 (나-서로 행복해야 한다 다-각각의 행복의 합이 전체의 행복이다) 이를 통해서 제시문 (나)가 C로 제시문 (다)가 B로 대응되는 근거 또한 충분히 서술해 주셨습니다.
2. 이 표 대응문제에서는 충분히 좋은 답안을 작성했으나, 하나 아쉬운 점은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 2번째 문장에 '이 제시문은 개개인 간의 행복의 정도 차이는 인정하는 입장을 띤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대응의 포인트로 따지면 서술하신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굵이 서술하여 오히려 논지가 꼬여버리게 되는 결과가 생기므로 서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3문단에서도 '공동체의 행복도가 크다면 개인의 행복권을 침해 받더라도 용인한다'라고 서술해 주셨는데 이도 사실상 제시문의 내용과 어긋납니다. 제시문의 논지는 개인의 행복이 커짐 -> 공동체의 행복이 커지는 공리주의 따라서 전체적인 평균 행복 값이 높아지는 논리이지, 공동체의 행복도가 크다고 개인의 행복권을 침해받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3. 이 외에는 크게 특별한 점이 없으나, 15 모의 인문 표대응 문제는 난이도가 下 에서도 最 下수준의 난이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문제를 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왜 이렇게 문제가 쉽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난이도예요. 따라서 이 문제 말고 다른 표 대응 (2009 창조와 파괴, 2012 새로움) 등의 문제를 푸시면서 표 대응의 잘못된점을 고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 전체적으로 제시문의 fact와 어긋나는 근거서술을 하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를 조심하시면서 좀 더 기본적인 내공을 쌓으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될 듯합니다.